라싸, 티베트 문화 보존 '청신호'

밴쿠버 썬, 티베트 '라싸' 현장 취재 보도 눈길

라싸에서 티베트 문화는 잘 보존되고 있을까? 〈The Vancouver Sun〉 지가 이 같은 '의문' 을 품고, 일주일 동안 취재한 결과, '긍정적' 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중국 정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현장 취재' 라는 점이 보도의 '신뢰' 를 떨어뜨리기는 하지만, 〈The Vancouver Sun〉 지의 "라싸 지역의 가정, 사원, 학교, 관광지에서 만큼은 티베트의 '적극적 참여', 중국의 '행정적 지원' 이 어우러져 티베트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라싸 지역에서 티베트 문화 보존의 가장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집' 이다. 라싸 지역의 티베트인 가정 대부분 예불 공간을 마련해 놓고 '예불의 일상화' 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티베트 문화의 꽃이 바로 불교"라고 전제한 〈The Vancouver Sun〉 지는 "라싸 지역의 티베트인 가정에서 가족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불 공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라싸 지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화' '자본화' 등에 맞서 티베트인이 자신의 정신문화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이는 조캉 사원을 방문하겠다며 '관광안내소' 에 등록한 '순례자' 수가 하루 5000여 명을 넘고 있다는 점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목한 〈The Vancouver Sun〉 지는 '사원 관광 안내소' 의 씨렌(Ciren) 소장의 말을 인용, "조캉 사원 순례자의 수는 추수를 분기점으로 크게 증가하는데, 이때는 순례 희망자에게 '방문 번호' 를 발급, 그 수를 제한할 정도"라고 전했다.


닝치 구앙동(Nyingchi Guangdong) 학교의 교실. 라싸에 있는 이 학교는 1년 과정의 유치부과 12년 과정의 초 · 중등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학생 70%가 티베트인이다. 총 15개 교실에서는 티베트 · 중국의 언어 · 문화 등이 주로 강의되고 있는데, '대화형 디지털 칠판' 등이 설치될 정도로 최첨단의 면모를 보인다.

티베트 적극 참여… 中 행정 지원
가정 · 사원 · 학교 · 박물관 등에서
현대 · 자본화 맞서 티베트 전통 이어

라싸의 바코르(Barkhor) 광장이 추수를 기점으로 순례자들 사이에서 명물로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바코르 광장은 사원 방문 순서를 기다려야 할 때, 모이는 곳으로, 이곳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온종일 오체투지를 하는 순례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바코르 광장이야말로 티베트 불교문화의 교두보"라고 전제한 〈The Vancouver Sun〉 지는 "이곳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반 중국 시위' 가 가장 치열했던 현장이었다"며 "순례자, 관광객, 상인 등으로 온종일 북적이는 바코르 광장은 티베트 전통문화를 지키려는 티베트의 노력과 '행정적 지원' 을 아끼지 않고 있는 중국의 '유화정책' 이 한데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싸의 닝치 구앙동(Nyingchi Guangdong) 학교와 티베트 대학 등도 손꼽히는 '티베트 문화의 첨병' 이다.

〈The Vancouver Sun〉지에 따르면, 1년 과정의 유치부와 12년 과정의 초 · 중등부로 운영되고 있는 닝치 구앙동 학교의 재학생 70%가 티베트인 가정의 자녀들이다. 티베트 전역에서 찾아온 재학생들은 총 15개 교실에서 티베트와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한편 현대적인 교육과정도 밟고 있다. 중국의 후원을 받고 있는 닝치 구앙동 학교의 15개 교실은 '대화형 디지털 칠판' 등이 설치될 정도로 최첨단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티베트어 프로젝트' 를 진행하고 있는 라싸의 티베트 대학도 뒤지지 않는다.

"세계 각국에서 개발, 사용되는 있는 언어 관련 소프트웨어에서 티베트를 자유롭게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 프로젝트를 설명한 게상 두오지(Gesang Duoji) 교수는 "윈도우, 리눅스 등 OS 프로그램의 '멀티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워드프로세서에서 자유롭게 티베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티베트 언어와 문화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The Vancouver Sun〉 지는 라싸 지역에서 티베트 관련 박물관 수의 증가에도 주목했다.

"라싸를 중심으로 중 · 소형 사설박물관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The Vancouver Sun〉 지는 지미 왕쵸(Jimy Wangtso)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 "문화는 상호 작용의 패러다임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며 "고대와 현대의 상호소통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설박물관의 증가는 티베트 문화를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대리모 아닌 엄마로서 가미 키울 것"

세간 울린 태국 우바새의 모정… 성금 잇달아


생물학적 부모에게서 버림받음 가미(Gammy · 7개월)와 대리모 파타라몬 찬부아(Pattharamon Janbua · 21)

"어릴 적에 단기출가도 했던 불자로서 '낙태' 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최근 태국의 대리모에게서 태어났다가 장애를 이유로 호주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기 '가미' 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분노를 촉발시켰다.

국제 사회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생후 7개월 아이 가미(Gammy)의 대리모 파타라몬 찬부아(Pattharamon Janbua · 21) 씨는 〈LifeNews〉 지와의 인터뷰에서 낙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찬부아 씨가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은, 호주인 부부와 '대리모 출산 계약' 을 하고, 이란성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신생아 중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가미(이란성 쌍둥이 중 남자)를 '대리모' 가 아닌 '엄마' 로서 키우게 되면서부터이다.

"가미를 사랑해요. 내 뱃속에서 키웠잖아요. 내 친자식이나 다름없어요"라는 찬부아 씨는 "호주인 부부는 처음에 낙태를 강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라며 "가미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어요. 모두 어른들이 잘못한 일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가미의 딱한 사정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자 호주인 부부에게 국제적 비난이 쇄도했다"고 전한 〈LifeNews〉지는 "호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가미에게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며 "덕분에 가미는 심장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덧붙였다.

한편 태국정부는 '가미' 사건과 함께 자국에서 생부가 같은 아기 9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리 출산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업적 대리 출산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 수행 통한 중독 치유… 美 서부에서 각광

노하 레빈 저서 〈Refuge Recovery〉 눈길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는 '병증' 중 하나가 바로 '중독' 이고, 그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노하 레빈(Noah Levine)이 〈Refuge Recovery〉(HarperOne 刊)에 게재한 '중독 치유 프로그램' 이 세간의 이목을 잡고 있다"는 〈San Jose Mercury News〉 지의 보도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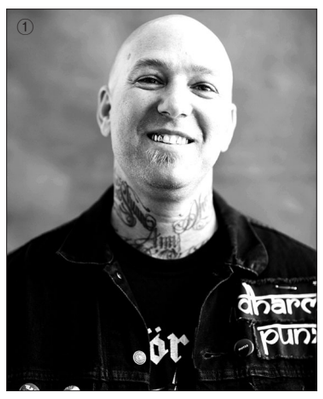
노하 레빈 씨는 '불교 명상가' 로 널리 알려진 '잭 콘필드' 와 함께 수학한 독실한 불교도이다.

〈San Jose Mercury News〉 지에 따르면, 독실한 불교도인 노하 레빈의 '중독 치유 프로그램' 은 불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앞서 세간에 알려진 다른 종교계의 방법론보다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노하 레빈의 '중독 치유 프로그램' 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산타 크루즈, 시애틀 등지를 필두로 전국의 지역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고 〈San Jose Mercury News〉 지는 분석했다.

'중독 치유 프로그램' 은 자아인식 · 수정 · 형성 등으로 구성된 12단계 과정을 통해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을 소개하고 있다.

〈San Jose Mercury News〉지는 "중독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인식을 수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재학습 과정' 이 필요하다"는 노하 레빈의 말을 인용하고, "12단계 과정에는 중독 행위 중단뿐만 아니라, 망가진 뇌기능과 미성숙한 행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까지도 포괄되어 있어, 좋은 반응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①노하 레빈 (Noah Levine)



②노하 레빈의 〈Refuge Recovery〉 (HarperOne 刊) 표지

오종욱 편집위원

왕조현, 캐나다 밴쿠버서 불교수행 중

사원에서 승복입은 모습 목격 돼

천녀유혼으로 잘 알려진 홍콩스타 왕조현(王祖賢 · 왕주셴)이 불교에 심취해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연예매체 텐센트위러(娛樂)는 8월 4일 "왕조현이 캐나다 밴쿠버의 한 사원에서 검은색 승복을 입고서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이 한 누리꾼에 의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 속 왕조현은 머리를 반묶음하고 발목을 덮는 긴 길이의 검은색 의상을 입고 있다. 승려처럼 옷을 입은 왕조현은 사찰에서 수행을 하는 듯 경건한 분위기다.

이에 대해 왕조현 측은 부모와 함께 사원을 찾은 것일 뿐 출가한 것은 아니라고 세간의 '왕조현이 비구니가 됐다' 는 설을 부인했다.


캐나다 밴쿠버 한 사원에서 검은색 승복을 입고있는 왕조현의 모습이 포착됐다.

2002년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간 왕조현이 베이징위성TV 예능프로그램 '사인정제(私人訂制)' 로 연예계에 복귀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헌종법 개정안내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우리 일붕종도(一鵬宗徒)와 일붕법손(一鵬法孫)의 영원한 번영을 발원(發願)하면서

불기2532(서기 1988)년 9월 19일 제정 공포되고 5차에 걸쳐 개정된 종헌종법을 이제 불기2558년 5월14일 제48차 임시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개정 공포한다.

불기 2558(서기2014)년 8월14일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경 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